

Question 5

창공구락부¹⁾가 무엇인가요?

공군 애호단체 중에는 공군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 활동과 장병 인성교육, 문학 강연회, 공군 정체성 함양 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창공클럽’이라는 문인단체가 있습니다. 이 문인단체의 역사는 벌써 60년이 넘었는데요, 이 단체의 초창기 이름이 바로 창공구락부입니다.

1) 구락부(俱樂部)
‘클럽(Club)’의 한자말

창공구락부, ‘펜’을 무기로 참전하다

6·25전쟁 때 우리 군인들 모두 총, 탱크, 비행기 등을 무기로 북한군과 싸웠지만, 후방에서는 총이 아닌 ‘펜’을 무기로 전투에 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인 박목월, 소설가 황순원과 같은 훌륭한 문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여러 문학작품을 통해 전방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전우들의 전투의지를 고양시키는 활동을 열심히 전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후방에 아군의 눈부신 활약상과 북한군의 무도함을 걱정적으로 전달하는 등 전

장의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문학작품을 이용해 전투의지를 북돋고,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활동을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결성된 것이 바로 창공클럽의 전신인 창공구락부입니다.

1951년 문인들에 의해 결성된 창공구락부는 공군 기관지인 '코메트지'와 '공군순보(空軍旬報)'에 주옥같은 작품들을 게재해 공군의 활약상을 국민들에게 알렸다.



공군 애호 문인단체 창공클럽의 전신

창공구락부는 1951년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등 16명의 문인들에 의해 결성되었습니다. 주옥 같은 작품으로 익숙한 그들은 전쟁 중 공군 기관지인 '코메트지'와 전장의 뉴스를 전하는 '공군순보(空軍旬報)' 등을 제작해 공군의 활약상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고향사람들」이라는 공연에 직접 출연하기

도 했습니다. 이 같은 활동은 펜이 총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고, 전장에서 이같은 활동을 펼쳤던 문인들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군번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현재진행형

창공구락부가 처음 결성된 지 55년이 지난 2006년 9월 7일, 우리나라의 문단계를 이끌고 있는 53명의 문인들이 한 마음으로 다시 뭉쳐 ‘창공클럽’을 결성했습니다. 창공구락부에서 창공클럽으로 거듭난 것이지요. 그들은 창공구락부의 정신을 계승하여 방송, 라디오, 신문,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군을 소재로 한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군 복무에 임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복무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다양한 활동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공군을 빛낸 인물(단체 협력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창공클럽 회원들이 함께 만든 시집 '공감'

창공클럽 회원들의 주요 작품

작가명	주요 작품
강 민	시집 「꽃, 파도, 세월」 등
고운기	시집 「자전거 타고 노래 부르기」 등
권소희	소설집 「시타커스, 새장을 나서다」 등
권현숙	소설 「에어홀릭」 등
김영옥	시집 「거지여행」, 「부러진 것이 어디 꽃대뿐이라」 등
김정주	소설 「환」, 「결눈질」 등
도종환	시집 「접시꽃 당신」 등
손세실리아	시집 「기차를 놓치다」 등
송문헌	시집 「그리운 것은 눈 속에 있다」 등
신수현	시 「창공과 새」 등
안명옥	시집 「나, 진성은 신라의 왕이다」 등
양문규	산문집 「너무도 큰 당신」 등
오사라	시집 「마음의 여행」 등
이애정	시집 「이시대의 사랑법」 등
이운식	「조국의 별 최용덕」, 「항공독립운동과 임도현 비행사」 등
이은봉	시집 「첫눈 아침」, 「책바퀴」 등
이진명	시집 「세워진 사람」 등
이현수	소설 「토란」, 「신기생년」 등
차인숙	소설 「리턴 투 베이스」 등
최춘희	시집 「시간 여행자」 등